

의정모니터 처리보고서

성명	김 해 경					
주소						
의견제목	지하철 임산부 좌석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.					
의견요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하철마다 한 칸을 지정해 임산부&노약자 전용 칸으로 만들고 탑승하는 곳에는 임산부 & 노약자 배려석 입구라고 분명한 표시를 해 시범 운영하다가 호응도가 상승되면 한 칸씩 차츰 증설 시키는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함. 					
회신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리공사 운용 열차는 역간거리가 짧고 통근형 전동차로 짧은시간에 많은 승객을 수송하기 위한 열차이며, ○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10조2항,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)에 따라 1량에 12석(20%) 이상 설치 의무화 됨. ○ 공사는 전동차 객실의자 일반 칸을 기준으로 총 54석 중 교통약자석 12석(22%), 교통약자배려석 7석(13%) 운영중임. ○ 객실 중앙 교통약자배려석 7인석 의자 중 좌/우측 끝단 2석을 임산부배려석으로 지정 ○ 2014년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해 임산부배려석 디자인 확정 ○ 임산부배려석 디자인 개선사업 시행하여 5, 8호선은 완료, 6, 7호선은 '16년 12월까지 완료예정(의자색깔 핑크색 교체, 엠블럼과 객실바닥 안내표지 부착) ○ 임산부&노약자 전용칸 설치시 전동차는 종점까지 운행 후 반대편 운전실을 이용하여 운행을 다시 시작하여 전용칸 위치가 맨 앞칸 또는 맨 뒷칸으로 위치가 변경되고, 전동차 중앙부 칸에는 승객 밀집도가 높아 전용칸 지정 및 탑승하는 곳에 안내표지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. ○ 현재 각 량마다 설치되어있는 임산부&노약자석은 임산부&노약자 승객이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배치하였으며 일반 이용시민의 배려의식이 고취되면 전용칸보다 이용이 더 편리하다고 사료됨. ○ 따라서, 임산부배려석은 이용시민의 배려의식 전환에 일정기간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, 6, 7호선 전동차 디자인 개선 확대적용과 승강장 및 열차내 임산부배려석 자리양보 홍보영상을 표출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 사업과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임산부 배려 문화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					
처리부서의견	시책반영	시책참고	의정활용	장기검토	중복.기시행	반영불가
						○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산부&노약자 전용칸 이용자를 강제로 제한하지 않으면 현재의 임산부배려석과 차이가 없어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며,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10조2항,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)에 따라 한칸에 12(20%)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있어 임의로 특정칸 지정을 위해 없애거나 줄일 수 없음. ○ 임산부&노약자 전용칸 설치시 전동차는 종점까지 운행 후 반대편 운전실을 이용하여 운행을 다시 시작하여 전용칸 위치가 맨 앞칸 또는 맨 뒷칸으로 위치가 변경되고, 전동차 중앙부 칸에는 승객 밀집도가 높아 전용칸 지정 및 탑승하는 곳에 안내표지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. ○ 현재 각 량마다 설치되어있는 임산부&노약자석은 임산부&노약자 승객이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배치하였으며 일반 이용시민의 배려의식이 고취되면 전용칸보다 이용이 더 편리하다고 사료됨. ○ 이러한 사유로 임산부&노약자 전용칸 설치 운영하는 방안은 어렵다고 사료됨. 					
처리부서	주관과	부서명	담당자	전화번호	FAX	
	도시철도공사	차량계획처	최용각	6311-2956	6311-4120	